

한국과 중국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실태와 여가요구 및 학업스트레스*

The After-School Lives of Korean and Chinese Children,
Their Need for Leisure, and Academic Stress

인하대학교 아동복지학전공

박사과정 장 위 천**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 수 이 완 정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Inha Univ.

Doctoral Course : Zhang, Yu-Chen

Professor : Lee, Wan-Je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after-school lives of Korean and Chinese children, as well as their need on leisure, and academic stress. A total of 746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tudy: 369 4th graders and 377 3rd graders; some were sampled in Incheon City, South Korea, and others in Dandong City, China. The SPSS WIN 12.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and the statistical methods employed were Frequency, the Chi-square test, the two-way ANOVA. The main results showed that neither Korean nor Chinese children had various after school-activities, or had enough time for leisure. Whereas the Korean children tended to study or use computers during their after-school time, their Chinese counterparts mainly studied or did homework, and they experienced a higher level of academic stress from their parents than the Korean children.

▲주요어(Key Words) : 한국(korea), 중국(china), 방과 후 생활실태(after school life), 여가요구(need on leisure), 학업스트레스(academic stress)

I. 서론

한국과 중국은 자녀 교육에 있어 성적제일주의를 강조하여 학업이 아동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의 방과 후 생활도 사교육과 숙제 등 학업과 관련된 시간이 많은 편이다. 한국 통계청(2008)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현재 한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91%, 중학생의 78%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에도 아동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다. 2007년 현재 중국 안휘성 청양구(中國安徽省青陽區)에 거주하는 중·소학교 학생 중 97%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中國安徽省青陽區教育局, 2008). 과외를 많이 받는 중국 아동과 달리 한국 아동의 경우 과외보다는 학원을 통해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다를 뿐, 결국 아동의 방과 후 생활이 학업과 사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중국이나 한국 아동 모두 별반 다르지

* 본 논문은 2009학년도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주 저 자 : 장위천 (E-mail : tianxiezhuo@hanmail.net)

않아 보인다.

한·중 양국은 수교 이래 정치·외교·통상·문화·교육 등의 방면에서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는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 한국 초, 중등 학생은 2004년 2,060명, 2005년 2,525명이었으며(한국통계청, 2008), 2007년까지 중국 국가교육부에 인정된 91개 국제학교 중에 한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는 22개에 이르며(中國國家教育部, 2007), 2006년에는 중국 연길시(延吉市)에서 '제1회 한중아동문학상시상식 및 한중아동문학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동일한 유교 문화권에 속한 양국 아동의 생활방식과 양육환경의 세부적인 이해를 위한 비교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을 강조하는 한국과 중국 양육 문화의 특성이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방과 후 생활과 여가를 중심으로 두 나라 아동의 생활 일부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한국과 중국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90년대부터 아동의 방과 후 생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김선미, 1997; 나영희, 1998; 박노혁, 2003; 백남정, 1999; 이선순, 2002; 이향란, 1996; 정영순, 2004). 또한 중국의 경우에도 아동의 방과 후 생활에 관한 연구가 90년대부터 많이 이루어졌는데(李煥娥, 2000; 林莉·王健敏, 2005; 吳奇程·袁元, 2002; 張紅衛, 2004; 趙建坤, 1992; 周明, 1997), 최근의 방과 후 생활에 관한 연구는 부모나 아동의 스트레스 등 아동의 방과 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가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쉰원원·유수연(水遠璇·劉舒鸞)(2006)은 부모 기대와 초등학생의 방과 후 생활간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정희생(鄭惠生)(2007)은 성적제일주의의 학교 교육을 따라가기 위하여 초등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연구하였다.

아동의 방과 후 생활에는 방과 후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건강 및 스포츠 활동, 오락 및 사교활동, 봉사 및 종교 활동, 관람 및 감상활동 등 여러 가지 여가활동이 포함되며, 방과 후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동의 다양한 욕구 활동을 충족시키고, 특기·소질·취미·적성 및 창의력을 계발함으로써 아동 보호와 아동의 전인 발달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손영미, 2001). 근래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한국의 아동은 TV 외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 정보검색 등의 활동에 몰입하고 있으며, 중국의 아동도 이전에 비해 TV,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구정숙 등(2005)의 2004년 한, 중 비교연구에 따르면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아동의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생이 92%, 중고등학생이 96-97%에 이르렀고, 이에 비해 중국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25-26%, 중고등학생이 38.9-4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는 학업, 근로와 같은 일상생활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소모를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촉매제가 된다.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해 인간은 새로운 활력을 얻으며 새로운 경험의 축적을 통해 충만한 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 아동은 성장하면서 학업에 열중하는 능력 뿐 아니라 적절한 여가 활동을 선택하고 즐기므로써 건강한 삶의 정상적인 리듬을 유지하는 능력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가 시간에 대중문화를 획일적, 모방적, 향락적으로 따르는 행위는 여가의 부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Dumazediera, 1967).

여가요구(leisure demand)는 여가활동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선호 또는 욕망으로서 여가활동의 결과 나타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참여 이전의 욕망까지도 포함한다(李德明, 1999). 아동은 여가시간을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요구, 여가 활동을 통해 건전한 자기표현과 성취감의 기회를 가지려는 요구, 여가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요구와 여가를 즐기면서 적절한 정신적 자극을 가지려는 요구를 키워간다. 아동기의 여가요구는 자신의 정체성을 학교와 같은 공식적인 사회활동 이외의 활동에서도 구현해내려는 요구로써 여가 활동을 통해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발달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기존중감과 자아 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생활만족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아동은 학업중심의 생활로 인하여 건전한 여가 요구를 발달시키는데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아동의 여가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부모는 아동에 대한 과잉 기대 속에서 아동의 교육활동 참여를 과부화 시키고 학력위주의 사회를 조성함으로써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아동의 방과 후에는 여러 영역에서 사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아동들에게는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은 개인의 심리적 성격이나 경험 내용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같은 환경적 요인까지 광범위하게 망라되어 있다(천민필, 1994). 가정에서 부모로 인한 아동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 중 가장 높은 스트레스는 과잉 기대이며,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요인 중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권숙희, 1998).

한국과 중국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아동의 방과 후 생활에 대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근래 이루어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관련 연구를 보면, 과외학습을 많이 받는 학생이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박성희, 2006; 이지은, 2007), 부모양육태도가 권위적일수록 학업스트레스가 크며(양영미, 2007; 정중성, 2006), 학업스트레스와 우울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김예원, 2008)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연구(馮永輝·周愛保, 2002; 李金釗, 2004; 李玲慧·陳曉莹, 2003; 俞國良·陳詩芳, 2001; 張向東, 1998; 趙前章, 1996)에서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 관계가 있으며(楊文卿, 2008), 사회적 지지가 클수록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牟宏玮, 2006; 王玉兵, 2007). 특히 중국에서 이루어진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부모로부터 기인하는 학업스트레스(陳旭, 2004; 黃玉清, 2007; 牟宏玮, 2006; 王玉兵, 2007; 吳南, 2008; 肖燕, 2001)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땡첸(鄧晨) 등(2006)이 중국과 한국의 부모양육방식을 비교한 연구에서 양국의 부모양육방식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중국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모두 아동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에게 받는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희, 2006; 진천천, 2008; 黃玉清, 2007).

특히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한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과외학습을 받는 아동이 과외를 받지 않는 아동보다 부모로부터 학업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성희·김희화, 2008; 이지은, 2007),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학습에 대한 태도나 학습에 대한 목적의식이 뚜렷한 것으로 밝혀졌다(유성은, 2002). 이와 비교하여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중국의 연구에서는 성적이 좋은 학생이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보다(吳南, 2008), 과외를 받는 학생이 과외를 받지 않는 학생보다(肖燕, 2001), 도시의 중학생이 농촌 학생보다(牟宏玮, 2006; 王玉兵, 2007), 중점(重点)학교 학생이 비중점(非重点)학교 학생보다(陳旭, 2004) 부모로부터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모두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특히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두 나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를 직접 비교해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 아동의 발달 과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들의 방과 후 생활실태와 여가 요구 및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업 중심, 학력 위주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있는 한국과 중국 아동의 생활상을 일부 객관화시켜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한국과 중국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실태는 어떠하며, 이는 비교문화집단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한국과 중국 아동의 여가 요구는 어떠하며, 이는 비교문화집단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한국과 중국 아동의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는 어떠하며, 이는 비교문화집단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 인천광역시와 중국 요녕성 단둥시(中國 遼寧省 丹東市)에 거주하는 아동이었다. 인천광역시는 대한민국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광역도시로, 2005년 주민등록 인구가 2,531,280명이었는데(한국 통계청, 2005) 인구 면에서 수도권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에 이어 대한민국 제 3의 도시에 해당한다. 단둥시는 중국 요녕성에 속해있으며 요동반도 경제개발구인 동북아 경제권 중심지대에 위치해 있다. 중국대륙을 전체로 볼 때 요녕성이 위치한 동북 3성은 현재 중국의 3대 성장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북경, 상해에 이어 발전규모가 세 번째로 큰 지역에 위치해 있다(胡欣, 1994). 한국 인천광역시와 중국 요녕성 단둥시는 지리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고, 정치·외교·통상·문화·교육 등의 방면에서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져왔다. 인천광역시나 단둥시는 모두 자국 내 경제발전 수준의 약 2~3위권에 속하며, 자국 내에서 일정한 문화적 생활수준을 갖추고 있다. 가령 양 도시 가정의 TV 및 컴퓨터 사용율에 대한 통계를 비교해보면, 2007년 현재 한국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아동의 TV·비디오 시청률은 70.6%, 컴퓨터 사용률은 70.2%였으며(한국 통계청, 2008), 2005년 현재 중국 단둥시 가정의 TV·비디오 시청률은 98.37%, 컴퓨터 사용률은 62%, 라디오 사용률은 98.41%인 것으로 나타났다(丹東市統計局, 2006). 그러므로 한국 인천광역시와 중국 요녕성 단둥시의 초등학교 아동 집단을 자국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학년별, 성별 분포

명(%)

국 적	성 별	학 년	학 년		계
			초등4학년	중등3학년	
한 국	남학생		78(21.3)	97(26.5)	366(100.0)
	여학생		95(26.0)	96(26.2)	
중 국	남학생		94(24.7)	90(23.7)	380(100.0)
	여학생		102(26.8)	94(24.7)	
	계		369(49.5)	377(50.5)	746(100.0)

내에서 비슷한 수준의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는 문화비교집단으로 표집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연구의 대상 연령은 Erikson(1959)의 발달단계에 근거하여 사회 정서적 발달특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동중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청소년 초기에 속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의 인천광역시의 중산층 거주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총 3개교와 중국 단둥시의 중산층 거주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총 4개교를 임의 표집하여 모두 8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결과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4학년생 369명, 중학교 3학년생 377명 등 총 746명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한국과 중국에서 표집된 연구 대상자의 성별과 학년별 분포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설문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실태, 여가 요구 및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를 조사하기 위해 각각 한국어와 중국어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최초의 설문지는 한국어로 만들어졌으며, 한국어를 익힌 중국인 대학원생 중 아동학전공자에게 이를 중국어로 번역하게 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 설문지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어를 익힌 또 다른 중국인 대학원생에게 중국어로 된 설문지의 내용을 다시 한국어로 역번역(re-translation) 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최초의 한국어 설문지와 최종 번역된 한국어 설문지의 내용을 비교하여 세부 내용이 동일하지 확인하였다.

1) 방과 후 생활실태

한국과 중국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윤매자(2002)의 도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방과 후 생활실태는 평일 방과 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의 종류, TV 시청시간, 컴퓨터 사용시간, 컴퓨터 이용방법, 함께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 등을 묻는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제시된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방과 후 생활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 내용을 아동학 전공자 3인에게 보이고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2) 여가요구

여가요구 설문지는 윤매자(2002), 이덕명(李德明)(1999) 등의 도구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여가 요구는 하루 중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정도, 친구와 어울려 하는 일의 종류, 본인이 여가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의 종류, 여가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유로운 여가활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 등을 묻는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제시된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여가 요구 설문지를 아동학 전공자 3인에게 보이고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3)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박용식(1996)의 학업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에게서 느끼는 학업스트레스를 묻는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용은 '어머니(아버지)가 성적 이야기를 할까 항상 두렵다', '어머니(아버지)가 기대하는 성적을 내지 못해 고민이다', '어머니(아버지)가 들어오면 얼른 보던 TV를 끄고 공부하는 척 한다'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에 따라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구성된 설문내용은 아동학 전공자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 α 값이 .86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실태, 여가요구와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문항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8년 3월 한국 인천광역시와 중국 요녕성 단둥시(遼寧省丹東市)에 소재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40명과 중학교 3학년 학생 40명 총 8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중국에서는 예비조사를 하기 전에 중국어로 번역된 설문지의 내용에 대해 중국 현지의 교사로부터 문항내용의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본 조사는 한국 인천지역 3개 학교에서 2008년 6월 2일부터 2008년 6월 16일까지 진행되었고, 중국 요녕성 단둥시(遼寧省丹東市)지역 4개 학교에서 2008년 6월 24일부터 2008년 7월 3일까지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학교 담임교사에게 실시 방법을 설명한 후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학생이 교실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12.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방과 후 생활실태와 여가요구에 대한 비교문화집단별 차이와 아동의 학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각각 실시하였다. 집단별 분포의 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χ^2 검증 결과는 관찰빈도와 기대빈도를 함께 제시하였다. 한국과 중국 아동이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스트레스의 비교문화집단별, 학년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비교문화집단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실태

한국과 중국 아동이 방과 후에 가장 오랜 시간 하는 활동의 종류를 순위별로 응답하게 하여 1, 2, 3 순위에 해당되는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방과 후 가장 오랜 시간 하는 활동은 놀이, 운동이나 학원에 가는 것이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방과 후 가장 오랜 시간 하는 활동이 집에서 숙제나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다. 중국 아동의 경우 학원을 가기 보다는 집에서 악기 교습 등 과외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교문화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188.78$, $df=2$, $p<.001$). 또한 방과 후 가장 오랜 시간 하는 활동의 종류는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83.73$, $df=6$, $p<.001$). 즉 한국은 초등학생의 경우 방과 후 가장 오랜 시간 하는 활동이 학원에 가는 것이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고 중학생의 경우 방과 후 가장 오랜 시간

하는 활동이 놀이,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다. 이와 비교하여 중국은 초, 중학생 모두 방과 후 가장 오랜 시간 하는 활동이 집에서 숙제나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아동의 방과 후 TV 시청시간을 조사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 아동이나 중국 아동 모두 방과 후 TV를 하루 2시간미만 시청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아동의 경우 초등4학년 아동은 하루 2시간미만 TV를 시청한다는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는데 비해, 중등3학년 아동의 경우 하루 24시간, 4시간 이상 TV를 시청한다는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국 아동의 경우 학년에 관계없이 하루 2시간미만 TV를 시청한다는 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57.44$, $df=6$, $p<.001$).

방과 후 컴퓨터 사용시간을 조사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 아동의 경우 컴퓨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아동의 비율은 기대치보다 현저히 낮는데 비해 하루 3시간미만이나 하루 3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국 아동의 경우 거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기대

<표 2> 방과 후 가장 오랜 시간 하는 활동(1·2·3순위)

관찰빈도(기대빈도)

구 분	숙제·공부	놀이·운동	학원	계	χ^2	df
한국 아동	69(161.4)	168(121.7)	129(82.9)	366(366.0)	188.78***	2
중국 아동	260(167.6)	80(126.3)	40(86.1)	380(380.0)		
한 국	초등 4학년	52(76.3)	38(57.5)	83(39.2)	283.73***	6
	중등 3학년	17(85.1)	130(64.2)	46(43.7)		
중 국	초등 4학년	138(86.4)	31(65.2)	27(44.4)	196(196.0)	184(184.0)
	중등 3학년	122(81.1)	49(61.2)	13(41.7)		
계	329(329.0)	248(248.0)	169(169.0)	746(746.0)		

*** $p<.001$

<표 3> 방과 후 TV시청시간

관찰빈도(기대빈도)

구 분	2시간 미만	2 - 4시간	4시간 초과	계	χ^2	df
한국 아동	231(237.5)	90(89.3)	45(39.2)	366(366.0)	2.01	2
중국 아동	253(246.5)	92(92.7)	3(40.8)	380(380.0)		
한 국	초등 4학년	140(112.2)	21(42.2)	12(18.6)	173(173.0)	193(193.0)
	중등 3학년	91(125.2)	69(47.1)	33(20.7)		
중 국	초등 4학년	116(127.2)	57(47.8)	23(21.0)	196(196.0)	184(184.0)
	중등 3학년	137(119.4)	35(44.9)	12(19.7)		
계	484(484.0)	182(182.0)	80(80.0)	746(746.0)		

*** $p<.001$

<표 4> 방과 후 컴퓨터 사용 시간

관찰빈도(기대빈도)

구 분	거의 없음	3시간미만	3시간이상	계	χ^2	df
한국 아동	131(201.6)	188(128.5)	47(35.8)	366(366.0)	109.44***	2
중국 아동	280(209.4)	74(133.5)	26(37.2)	380(380.0)		
한 국	초등 4학년	156(108.0)	27(68.8)	13(19.2)	210.14***	6
	중등 3학년	124(101.4)	47(64.6)	13(18.0)		
중 국	초등 4학년	106(95.3)	62(60.8)	5(16.9)		
	중등 3학년	25(106.3)	126(67.8)	42(18.9)		
계	411(411.0)	262(262.0)	73(73.0)	746(746.0)		

***p<.001

<표 5> 컴퓨터 활용방법

관찰빈도(기대빈도)

구 분	거의 없음	오락	정보검색	계	χ^2	df
한국 아동	58(138.4)	213(155.0)	95(72.6)	366(366.0)	147.72***	2
중국 아동	224(143.6)	103(161.0)	53(75.4)	380(380.0)		
한 국	초등 4학년	44(65.4)	74(73.3)	55(34.3)	219.08***	6
	중등 3학년	14(73.0)	139(81.8)	40(38.3)		
중 국	초등 4학년	143(74.1)	26(83.0)	27(38.9)		
	중등 3학년	81(69.6)	77(77.9)	26(36.5)		
계	282(282.0)	316(316.0)	148(148.0)	746(746.0)		

***p<.001

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109.44$, $df=2$, $p<.001$). 컴퓨터 사용시간의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아동의 경우 초등 4학년 아동은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시간이 거의 없거나, 3시간 미만인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은 반면, 중등 3학년 아동은 하루 컴퓨터 사용 시간이 3시간 미만이거나 3시간 이상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국 아동은 학년에 무관하게 방과 후 컴퓨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집단별 학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210.14$, $df=6$, $p<.001$).

한국과 중국 아동의 컴퓨터 활용 방법을 <표 5>에 제시하였다. 한국 아동은 컴퓨터로 정보검색을 하거나 특히 오락을 한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으며, 이에 비해 중국 아동은 컴퓨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다. 문화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147.72$, $df=2$, $p<.001$). 컴퓨터 활용 방법의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아동의 경우 초등 4학년 학생은 컴퓨터로 정보검색을 한다는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은 반면, 중등 3학년 학생은 컴퓨터로 게임, 채팅 등의 오락을 한다는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학년에 관계없

이 컴퓨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다. 이러한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219.08$, $df=6$, $p<.001$).

2. 비교문화집단 아동의 여가 요구

한국과 중국 아동의 여가 시간을 알아 본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의 아동은 하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2.4시간이라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고 중국의 아동은 하루 여가 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다. 이러한 문화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9.36$, $df=2$, $p<.01$).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아동의 경우 초등 4학년 학생은 하루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고, 중등 3학년 학생은 여가시간이 2.4시간이라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다. 이에 비해 중국 아동은 초등 4학년 학생의 경우 하루 여가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비해 중등 3학년 학생의 경우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이라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학년별 차이는 통계

<표 6> 평소 여가 시간의 정도

관찰빈도(기대빈도)

구 분	2시간 미만	2~4시간	4시간 초과	계	x ²	df
한국 아동	127(130.5)	135(116.8)	104(118.7)	366(366.0)	9.36**	2
중국 아동	139(135.5)	103(121.2)	138(123.3)	380(380.0)		
한 국	초등 4학년	86(61.7)	56(55.2)	31(56.1)	94.45***	6
	중등 3학년	41(68.8)	79(61.6)	73(62.6)		
중 국	초등 4학년	53(69.9)	47(62.5)	96(63.6)		
	중등 3학년	86(65.6)	56(58.7)	42(59.7)		
계	266(266.0)	238(238.0)	242(242.0)	746(746.0)		

p<.01, *p<.001

<표 7> 친구와 함께 놀 때 하는 일

관찰빈도(기대빈도)

구 분	놀이운동	전자오락	숙제·공부	계	x ²	df
한국 아동	269(265.4)	75(65.3)	22(35.3)	366(366.0)	12.82**	2
중국 아동	272(275.6)	58(67.7)	50(36.7)	380(380.0)		
한 국	초등 4학년	133(125.5)	24(30.8)	16(16.7)	46.86***	6
	중등 3학년	136(140.0)	51(34.4)	6(18.6)		
중 국	초등 4학년	133(142.1)	24(34.9)	39(18.9)		
	중등 3학년	139(133.4)	34(32.8)	11(17.8)		
계	541(541.0)	133(133.0)	72(72.0)	746(746.0)		

p<.01, *p<.001

<표 8> 아동이 희망하는 여가활용 방법(1·2·3순위)

관찰빈도(기대빈도)

구 분	놀이 운동	취미 활동	숙제·공부	계	x ²	df
한국 아동	190(168.3)	137(127.1)	39(70.6)	366(366.0)	34.86**	2
중국 아동	153(174.7)	122(131.9)	105(73.4)	380(380.0)		
한 국	초등 4학년	76(79.5)	73(60.1)	24(33.4)	99.70**	6
	중등 3학년	114(88.7)	64(67.0)	15(37.3)		
중 국	초등 4학년	61(90.1)	52(68.0)	83(37.8)		
	중등 3학년	92(84.6)	70(63.9)	22(35.5)		
계	343(343.0)	259(259.0)	144(144.0)	746(746.0)		

***p<.001

적으로 유의하였다($x^2=94.95$, $df=6$, $p<.001$).

한국과 중국 아동이 여가 시간에 친구와 함께 놀면서 주로 하는 일을 알아본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국의 아동은 친구와 놀 때 놀이, 운동을 하거나 게임, 채팅, 전자오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중국 아동은 친구와 놀이, 운동을 하거나 숙제, 공부를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12.82$, $df=2$, $p<.01$).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아동은 초등 4학년 학생의 경우 친구와 놀이, 운동을 함께 하는 비율이 기대치

보다 높았으며, 중등 3학년 학생의 경우 친구와 게임, 채팅, 전자오락 등을 함께 한다는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다. 중국 아동의 경우 초등4학년 아동은 친구와 놀이, 운동을 하며 놀거나 숙제, 공부를 함께 한다는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고, 이에 비해 중등 3학년 아동은 친구와 놀이, 운동을 함께 한다는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다. 중국 중등 3학년 학생의 경우 친구와 게임, 전자오락을 함께 한다는 비율도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x^2=46.86$, $df=6$, $p<.001$).

<표 9> 유의한 여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관찰빈도(기대빈도)

구 분	마음에 맞는 친구	충분한 용돈	부모님의 이해	계	χ^2	df
한국 아동	134(142.8)	102(73.6)	130(149.6)	366(366.0)	27.64	***
중국 아동	157(148.2)	48(76.4)	175(155.4)	380(380.0)		
한 국	초등 4학년	64(67.5)	22(34.8)	87(70.7)	85.59	***
	중등 3학년	70(75.3)	80(38.8)	43(78.9)		
중 국	초등 4학년	78(76.5)	20(39.4)	98(80.1)	196(196.0)	6
	중등 3학년	79(71.8)	28(37.1)	77(75.2)		
계	291(291.0)	150(150.0)	305(305.0)	746(746.0)		

***p<.001

<표 10> 자유로운 여가활동의 효과

관찰빈도(기대빈도)

구 분	명랑하고 즐거워 줌	생활에 활력을 줌	공부에 방해됨	계	χ^2	df
한국 아동	203(192.3)	142(134.4)	21(39.2)	366(366.0)	18.66	***
중국 아동	189(199.7)	132(139.6)	59(40.8)	380(380.0)		
한 국	초등 4학년	119(90.9)	49(63.5)	5(18.6)	173(173.0)	107.66
	중등 3학년	84(101.4)	93(70.9)	16(20.7)		
중 국	초등 4학년	74(103.0)	68(72.0)	54(21.0)	196(196.0)	6
	중등 3학년	115(96.7)	64(67.6)	5(19.7)		
계	392(392.0)	274(274.0)	80(80.0)	746(746.0)		

***p<.001

한국과 중국 아동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물어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한국 아동이 희망하는 여가 활용 방법은 놀이, 운동 및 취미활동이라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고, 이에 비해 중국 아동이 희망하는 여가 활용 방법은 숙제, 공부라는 응답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34.86$, $df=2$, $p<.001$).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아동의 경우 초등 4학년 학생은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는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는데 비해 중등 3학년 학생은 놀이, 운동을 하고 싶다는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국 아동의 경우 초등 4학년 학생은 숙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집단의 비율이 높았는데 비해 중등 3학년 학생의 경우 놀이,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고 싶다는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99.70$, $df=6$, $p<.001$).

여가 시간을 유익하고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은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 아동은 여가를 잘 보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용돈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이에 비해 중국 아동은 여가를 잘 보내려면 마음에 맞는 친구와 부모님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27.64$, $df=2$, $p<.001$).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여가를 잘 보내기 위한 조건으로 초등 4학년 학생은 부모님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았고, 중등 3학년 학생은 충분한 용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중국 아동은 여가를 잘 보내기 위한 조건으로 초등 4학년의 경우 부모님의 이해를, 중등 3학년 학생의 경우 마음에 맞는 친구를 꼽은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다. 이러한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85.59$, $df=6$, $p<.001$).

자유로운 여가활동이 본인에게 어떤 효과를 준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한국 아동의 경우 여가활동을 통해 명랑하고 즐거워지며, 생활에 활력을 준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던데 비해 중국 아동의 경우 여가활동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다. 이러한 문화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18.66$, $df=2$, $p<.001$).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아동의 경우 초등 4학년 학생은 여가활동을 통해 명랑하고 즐거워진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높고, 중등 3학년 학생의 경우 여가활동이 생활에 활력을 준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았다. 이와 비교하여 중국 아동은 초등 4학년 학생의 경우 여가활동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응답한 집단의

<표 11> 한국과 중국 아동의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

(N=746)

학 년	비교문화집단					
	한 국		중 국		전 체	
	N	m(sd)	N	m(sd)	N	m(sd)
초등학교 4학년	173	2.03(.75)	196	2.37(.74)	369	2.21(.76)
중학교 3학년	193	2.22(.74)	184	2.67(.65)	377	2.44(.74)
전 체	366	2.13(.75)	380	2.51(.72)	746	2.33(.76)

<표 12> 한국과 중국 아동의 학년에 따른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의 이원변량분석

변량원	제 곱	자유도	평균제곱	F
비교문화집단	28.65	1	28.65	54.86***
학 년	11.77	1	11.77	22.53***
비교문화집단*학년	.57	1	.57	1.10
오 차	387.54	742	.52	
전 체	4466.57	746		

***p<.001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는데 비해 중등 3학년 학생의 경우 여가활동으로 명량하고 즐거워질 수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학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107.66$, $df=6$, $p<.001$).

3. 비교문화집단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한국과 중국 아동의 부모관련 학업 스트레스를 알아본 결과 <표 11>,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화집단별($F=54.86$, $p<.001$), 학년별($F=22.53$, $p<.001$)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국 아동이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스트레스($m=2.51$)가 한국 아동이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스트레스($m=2.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등 3학년 학생이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스트레스($m=2.44$)가 초등 4학년 학생이 부모로부터 받는 학업스트레스($m=2.21$)보다 높았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근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 아동이 모두 교육 중심, 학력 중심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양국 아동의 생활상을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한국과 중국 아동의 방과 후 생활과 여가요구 및 부모에게 받는 학업스트레스를 비교해보는 것이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23위권의 경제발전규모를 가진 인천광역시와 요녕성 단둥시의 초등학교 4학년 및 중학교 3학년 학생 746명에게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아동은 방과 후 가장 오랜 시간 하는 활동이 학원에 가는 것인데 비해, 중국 아동은 방과 후 가장 오랜 시간 하는 일이 숙제, 공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실태를 조사한 촌취(陳旭)(2004)의 연구에서 중국 아동이 숙제·예습·복습과 관련된 학습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국 아동이 방과 후 자유로운 여가 시간을 보내는 대신 학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동이 자율적인 여가 관리 능력을 키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중국 아동도 마찬가지로 방과 후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기 보다는 학교 공부를 뒷받침하는 숙제나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방과 후 시간을 통해 정신적 소모를 회복시키고 일상의 활력을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한국 아동은 중국 아동보다 방과 후 컴퓨터 사용시간을 길게 응답한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구정숙 등(2005)의 연구에서 한국 가정의 인터넷 보급률이 중국 가정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그런데 한국 아동은 중국 아동보다 인터넷 접근율이 높은 대신 컴퓨터를 정보검색 등 건전한 용도보다는 게임, 채팅, 전자오락 등의 오락의 용도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서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아동의 방과 후 생활이 체육활동과 같은 동적인 형태보다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동의 활발한 방과 후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하루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은 한국 아동보다 중국 아동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아동의 경우 방과 후 학원에 가는 시간이 많아 집에서 숙제와 복습을 하는 시간이 많은 중국 아동에 비해 자유로운 여가 시간이 짧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 아동의 경우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여가 시간이 줄어드는 반면, 한국 아동의 경우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자유로운 여가 시간이 많다고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중국 아동의 경우 방과 후 숙제,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이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일 경우 더 늘어나는 반면, 한국 아동의 경우 초등학생일 때 악기, 체육, 외국어 등 다양한 특기교육을 받기 위해 학원에 가는 경우가 많지만 중학생이 되면 특기교육은 줄이고 학업을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만 받기 때문에 아동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가 시간은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보인 것이라 사료된다. 위의 컴퓨터 사용 현황과 연동지어 볼 때 한국 중학생은 늘어난 자유 시간을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오락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론해볼 수 있다.

넷째, 여가 시간에 친구와 놀면서 하는 일의 종류를 보면 한국 아동은 친구와 놀이, 운동외에 컴퓨터 오락을, 중국 아동은 친구와 놀이, 운동 외에 숙제, 공부를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아동의 경우 초등학생은 친구와 놀이, 운동을 함께 하지만, 중학생은 친구와 컴퓨터 오락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아동이 친구와 숙제, 공부를 하면서 보낸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에 대한 중국 부모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아동의 방과 후 생활이 학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쉰원쑤·유수연(水遠璇·劉舒艷)(2006)의 연구와 성적제일주의 학교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초등학생의 친구관계가 공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희생(鄭惠生)(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다섯째, 한국과 중국 아동이 희망하는 여가활동 방법은 비교 문화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 아동은 자유로운 시간에 놀이,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하고 싶다는 아동이 많았으나, 중국 아동의 경우 놀이, 운동 및 취미활동 외에 숙제나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아동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아동이 학력중심의 사회분위기에 매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 중국사회는 소수민족을 제외한 전 중국 가정에 한 자녀씩만 갖도록 제한한 한 자녀 정책이 결과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최고로 키우겠다는' 부모들의 욕망을 부채질한 결과로 귀결되었다(林莉·王健敏, 2005). 오늘날의 중국 학부모들은 마음껏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을 가슴깊이 지니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식들에게만은 같은 아픔을 겪게 해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周明, 1997). 이 같은 중국 부모들의 욕망(欲望)은 자식을 통해 학업에 대한 꿈을 이루어보겠다는 개인적 소망과 자신들의 노후(老后)를 자식이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섞이면서 교육을 과부화 시키고 '학력위주'의 사회를 만들었다(吳奇程·袁元, 2002; 張紅衛, 2004).

여섯째, 중국 아동은 여가를 의미 있고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마음에 맞는 친구나 부모님의 이해라고 보는 반면, 한국 아동은 여가를 위해 충분한 용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이 충분해야 여가를 잘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 아동의 또래 문화가 소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우려케 하는 결과이다. 아동기는 합리적인 소비의식을 건전하게 키워나가야 하는 시기(박지영, 2005)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이 용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한국 아동은 자유로운 여가활동이 명랑하고 즐겁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생활에 활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중국 아동은 이외에도 여가활동이 공부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부모들의 교육열은 한국 못하지 않게 뜨겁다. 자신의 자녀가 유명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기 바라는 "망자성룡(望子成龍)"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俞國良·陳詩芳, 2001). 이는 현대 중국사회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함과 동시에 인재경쟁도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李金鈞, 2004). 유능한 인재를 중시하고 이를 키우고자 하는 중국 사회의 분위기는 아동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아동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여가활동조차 학업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것이 아닌 가 사료된다.

여덟째, 중국 아동이 부모에게 받는 학업스트레스는 한국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중·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비교연구에서 중국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한국 아동보다 높게 나타난 땡첸(鄧晨) 등(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중국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결과들(馮永輝·周愛保, 2002; 李金鈞, 2004; 李玲慧·陳曉瑩, 2003; 張向東, 1998; 趙前章, 1996)은 학업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성적이 좋으며, 과외를 받고 있고, 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부모에게 받는 학업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높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연구 결과에서 중국 아동이 방과 후 생활상뿐만 아니라 여가에 대한 희망 내지 요구에서도 숙제 및 공부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중국 아동은 부모에게서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도 방과 후 생활에서 공부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의 한 도시씩에서만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한국과 중국 아동 전체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설문도구를 구성할 때 번역과 역번역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주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설문문항을 토대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중국 아동의 생활이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동일한 유교문화권에 속하면서 학업중심의 가치를 갖고 있는 한국과 중국 아동의

생활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아동의 방과 후 생활과 여가 및 학업스트레스를 비교 연구해 봄으로써 한국과 중국 아동의 생활을 일부 객관화시키는데 기여한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아동의 방과 후 생활실태와 여가요구에 대한 특성이 한국 아동과 비교됨으로써 향후 중국에서 이루어질 아동의 방과후 생활에 대한 연구에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초등학교 아동의 여가요구,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일부 진전시킴으로써 중국의 방과 후 생활관련 연구에 기여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및 중국 아동의 방과 후 생활이 학업을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 및 공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의 여가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중국 아동은 방과 후 생활과 여가 요구에서 공부 및 숙제를 중시하고 있었으며, 부모에게 받는 학업스트레스가 한국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 아동은 방과 후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오락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위해 충분한 용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 및 중국 아동이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여가 생활을 해나가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이들이 여가를 즐기고 생활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정숙·박혜원·조복희(2005). 중국 조선족, 한족, 및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미디어환경, 이용실태 및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3(2), 159-174.
- 권숙희(2001). 初等學校 小便檢査 有所見者의 醫療利用과 關聯 要因.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법(2006). 초등학교 학생들의 여가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1997). 학령기아동 대상 방과 후 프로그램 모형 정립.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원(2008).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2002).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여가 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태(2004). 청소년의 여가활용에 관한 실증 연구: 대전광역시 초·중학생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영희(1998). 방과 후 아동보호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1·2학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노혁(2003). 초등학교생의 방과 후 신체활동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희(2006). 아동의 학교학업 스트레스 및 과외학업 스트레스와 무력감 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희·김희화(2008).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5(3), 159-182.
- 박용식(1996). 兒童의 學業 스트레스와 學業成績과의 關係.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2005). 초등학교생의 용돈관리실태분석-초등학교 5, 6학년을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남정(1999). 초등학생 학부모의 학교내 방과 후 교육활동 인식과 참여 저해요인 분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영미(2001). 프로젝트 중심 방과 후 교육활동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영미(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 방식.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은(2002). 아동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 정도와 내외통제 소재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매자(2002). 한·일 초등학생의 여가활용 실태와 요구 및 만족도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순(2002). 장애 아동의 방과 후 지도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은(2007). 과외 학습으로 인한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향란(1996). 방과 후 아동지도의 실태와 기관운영에 관한 연구: 공부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순(2004). 방과 후 아동지도의 실태와 인식: 경기도 지역 유치원·어린이집원장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종성(2006). 부모의 직업군에 따른 양육태도, 학업성취압력 및 아동의 스트레스.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천천(2008). 한국과 중국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민필(1994). 國民學校 兒童의 스트레스 요인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통계청. www.nso.go.kr.
- 황영숙(2007). 아동의 일상적 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행동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陳旭(Chen Xu)(2004). 中學生學業壓力, 應對策略及應對的心理機制研究. 西南師範大學 大學院 博士畢業論文.
- 丹東市統計局. www.lnddw.com/Room/ShowShop.asp?ID=111.
- 鄧晨·沈林·何楣(Deng Chen·Shen Lin·He Mei)(2006). 韓國母親注重孩子智力開發. **中國社會報**, 06(2), 1-2.

- 馮永輝·周愛保(Feng Yong-Hui · Zhou Ai-Bao)(2002). 中學生生活事件, 應對方式及焦慮的關係研究. **心理發展與教育**, 02(1), 73-76.
- 胡欣(Hu Xin)(1994). **中國經濟地理**. 서울: 新書苑.
- 黃玉清(Huang Yu-Qing)(2007). 沉重的吶喊—上海市L初級中學學生教育現狀調查報告. **上海青年管理干部學院學報**, 07(2), 61-64.
- 李德明(Li De-Ming)(1999). 論余暇體育與我國人民的生活質量. **體育學刊**, 99(3), 74-76.
- 李煥娥(Li Huan'e)(2000). 充分認識文學名著的教育價值用名著充實中學生的課外生活. **山東教育科研**, 2000(2), 79-81.
- 李金釗(Li Jin-Zhao)(2004). 應對方式, 社會支持和心理壓力對中學生心理健康的影響研究. **心理科學**, 04(4), 213-215.
- 李玲慧·陳曉瑩(Li Ling-Hui · Chen Xiao-Ying)(2003). 直面壓力, 走向成功. **成都教育學院學報**, 03(8), 22-23.
- 林莉·王健敏(Lin Li · Wang Jian-Min)(2005). 杭州市小學生課外生活現狀調查研究. **上海教育科研**, 05(10), 52-55.
- 牟宏瑋(Mou Hong-Wei)(2006). 中學生社會支持對學業壓力應對策略的影響. 西南大學 大學院 碩士畢業論文.
- 水遠璇·劉舒艷(Shui Yuan-Xuan · Liu Shu-Yan)(2006). 關於父母期望與小學生課外生活關係的調查研究. **中國家庭教育**, 06(1), 42-46.
- 王玉兵(Wang Yu-Bing)(2007). 中學新生壓力及社會支持, 應對方式對壓力的調節效應. 山東師範大學 大學院 碩士畢業論文.
- 吳南(Wu Nan)(2008). 父母如何幫助孩子應對學習壓力. **寧夏教育**, 08(2), 76-77.
- 吳奇程·袁元(Wu Qi-Chen · Yuan Yuan)(2002). 城市小學生課外生活現狀調查報告. **現代教育論叢**, 02(6), 14-18.
- 肖燕(Xiao Yan)(2001). 中小學生學習負擔過重的成因分析及對策. 福建師範大學 大學院 碩士畢業論文.
- 楊文卿(Yang Wen-Qing)(2008). “好學生”也厭學. -人格發展不完善之禍. **天津教育** 08(1), 31-32.
- 余國良·陳詩芳(Yu Guo-Liang · Chen Shi-Fang)(2001). 小學生生活壓力, 學業成就與其適應行為的關係. **心理學報**, 01(4), 57-61.
- 張紅衛(Zhang Hong-Wei)(2004). 課外體育活動在高中班級建設中組織發展水平的作用探討. 東北師範大學 大學院 碩士畢業論文.
- 張向東(Zhang Xiang-Dong)(1998). 中小學心理健康調查研究. **吉林教育科學**, 98(2), 6-8.
- 趙建坤(Zhao Jian-Kun)(1992). 淨化課外生活, 提高生活格調. **邢台師專學報**, 92(1), 13-15.
- 趙前章(Zhao Qian-Zhang)(1996). 關於中學生對學業壓力的應對方式的調查研究. 華中師範大學 大學院 碩士畢業論文.
- 鄭惠生(Zheng Hui-Sheng)(2007). “考試至上時代”小學生課外時間用在哪儿? -小學生課外閱讀調查研究之七. **內蒙古師範大學學報**, 07(4), 108-117.
-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www.moe.gov.cn/edoas/website18/info9088.htm.
- 周明(Zhou Ming)(1997). 加強圖書館文化教育功能不斷豐富學生課外生活. **圖書館工作**, 97(2), 36-37.
- Dumazedier, J.(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N.Y.: The Free Press.
- Erickson, E. H.(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in psychology*. N.Y.: Norton Co.

□ 접수일 : 2009년 09월 15일

□ 심사일 : 2009년 10월 05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12월 05일